

북스리브로와 영풍문고는 불매해야 된다.

○ ○

밑에서 책 물어보다가 생각났는데, 북스리브로와 영풍문고는 불매해야 된다.

북스리브로 - 전두환 아들이 운영하는 서점

영풍문고 - 지금도 계속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석포제련소를 운영 중인 영풍그룹 소속 서점

북스리브로에서 책을 사면 '29만원'에게 우리 돈이 전달되는 것이고, 영풍문고에서 책을 사면 대중 행동 등으로 경북 봉화군 주민들의 처지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임.

(시공사는 재작년에 전두환 일가가 다른 곳에 매각했다고 함.)